
보 도 자 료

- 제공일 : 2005. 7. 6
- 제공자 :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
- 과 장 : 정 황 근
- 사무관 윤 영 렬
- 전 화 : 500-1807

이 자료는 2005년 7. 7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화학비료 보조를 유기질비료로 전환

= 2007년까지 유기질비료를 화학비료 보조 수준으로 =

□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,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 7월 1일 폐지된 화학비료보조 수준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.

- 금년에는 유기질비료를 70만톤을 지원하나, 2006년에 120만톤으로 늘리고 2007년에는 종전 화학비료보조 수준인 15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또한 산성화되고 규산 함량이 부족한 농경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농업인이 살포하기 용이하도록 현재 석회 13%, 규산 53% 수준인 입상(알맹이)을 2010년까지 100%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

- 아울러 화학비료를 통한 양분공급을 대체하고 쌀 품질개선에도 효과가 매우 높은 자운영,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지원도 2005년도 101 천ha에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.

□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친환경농업을 농업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.

-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 등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,
- 시설원예작물의 농약사용량 절감을 위해 천적해충방제사업을 2005년도 328ha에서 2013년까지 50 천ha로 대폭 늘려나가고,
- 2005년부터 도입된 천적, 키토산, 목초액 등 친환경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를 적용대상도 확대해 나가며,
- 개별 농가 및 필지위주의 친환경농업을 규모화, 전문화하기 위한 10~5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2005년까지 742개소를 조성하여 2013년까지는 1,500개소로 확충하고,
- 기존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시군 또는 읍면 단위를 묶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,000ha 이상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2013년까지 50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40% 감축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10%까지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
- 현재 비료를 표준시비량보다 약 30% 수준 과다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농산물의 품질저하 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농가의 비료구입비도 과다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,
- 금년도에 현행 논벼의 질소 표준시비량 11kg(300평당)을 7~9kg으로 하향 조정하고,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토양진단을 통한 적정시비 지도 등을 강화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비료비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.